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세금·채권 감면 혜택

□ 행안부는 시·도와 협의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카* 구매자들에게 지역개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.

-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하이브리드카의 보급을 촉진하고,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(서울·부산·대구)과는 달리 채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.
- 현재 서울, 부산, 대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400만원 하이브리드카를 구매 시 6%인 144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즉시 매도 시 21만원의 할인 부담금을 물어야 함.

*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거나, 차체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의 일반차량에 비해 연비 및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차세대 환경자동차

□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, 하이브리드카 구매자는 그간의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더불어 약 20여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.

-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폐지는 시·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, 조례 입법 예고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함.
- 반면, 10월 1일 이후라도 조례개정 시점인 연말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, 조례가 개정·공포된 이후 환급 받을 수 있게 됨.

□ 행안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으며,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함.

- 또한 실제 하이브리드카는 일반차와 동일하나, 배터리 가격이 200만원선에 달해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한 사람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되 자차(자기차량손해) 등의 특약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.

(하이브리드차 구매시 20여만원 추가 혜택,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, 9/15)